

구제역 방역 관련 양록농가 안내

경기도 일대에 창궐하고 있는 구제역으로 인해 인근 사슴농가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본회는 지난 5월 24일 구제역 발생 농장 인근에 위치한 사슴농가 100여 곳에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발송, 방역 강화를 당부하고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편집자 주>

▣ 구제역 조기방역에 최선을 다합시다

돼지에서의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록농가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구제역은 사슴을 포함한 우제류 가축에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시 폐사율이 매우 높아 축산업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절각철을 맞아 이동제한 구역내 양록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조기방역에 모두 협조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5. 24일 현재 방역대책 추진상황

- 5. 20일 이후 25일 현재까지 추가발생 신고 없음

- 5. 24일 현재까지 23건 신고 : 양성 12건, 음성 11건

- 구제역 관련 총 111농가 111,214두 살처분·매몰(사슴 20두 포함)

- 역학조사 결과 이번 구제역 발생은 최초 발생농장으로부터 사람, 차량 등 기계적 전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5월 18일과 19일 발생한 4개농장 인접 안성, 용인, 진천의 경계지역 (10km) 내 돼지농가 특별관리

- 금일(5. 24) 오후 6시 본회 김은성 회장 농림부 방역대책회의 참석 예정

▣ 사슴수매는 당장 실시되지 않습니다

일부 일선행정기관에서 사슴농가를 대상으로 수매참여 의향을 조사하여 농가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으나, 농림부는 구체적인 사슴수매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농장방문 및 녹혈판매 등에 상당한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황이 종료되면 녹용 등 양록생산물을 정상 판매할 수 있으므로 절각시기를 늦추지 말고 정상적으로 실시하여 녹용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본회와 기坦없이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는 지난 2000년 구제역 발생시와는 달리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개최되는 농림부 장관 주재 방역대책회의에 정식 멤버로 참석하는 등 긴밀하고 신속한 대처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매일 모든 구제역 관련 상황을 점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들은 협회와 긴밀히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매 및 수매결정시 수매가격 책정 등에 있어서 정부와의 협의창구는 본회이므로 수매를 요구해야 하는지의 여부, 기타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제한 지역내 농가대표를 지정해 주십시오

만약 구제역 방역이 장기화 될 경우 백신접종 및 수매 등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내 양록농가간 협의체계 및 본회와의 유기적 연락창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시·군단위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대표 및 간사 각 1명씩을 선출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회는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향후 수매 및 수매가 책정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회원농가를 우선으로 고려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아직 회원

가입이 되지 않은 농가는 반드시 정식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제한 지역 농가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구제역 발생지 반경 10km 이내 이동제한지역 농가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최저 1,800만원에서 최고 5,500만원 까지이며 지원조건은 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사슴농가에도 지원되므로 필요하신 농가는 관내 행정기관 및 농협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본회 홈페이지(www.koreadeer.or.kr)를 통해 구제역 관련 변동상황을 수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회원가입 절차도 홈페이지의 관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양목](#)

사단 법인 한국양목협회